

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보건정책

EMCDDA

※ 출처 : EMCDDA

※ 편집 · 감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영기 팀장

신 향정신성 물질 등장에 부합되는 보건정책



신속히 증가하고 있는 신 향정신성 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더불어 기존의 신 향정신성 물질 평가체계(evaluative framework)가 보완되어야 한다.

지난 십년 간 생겨났던 신 향정신성 물질(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들은 기존의 마약 관련 정책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특정한 정보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유럽인들 사이에서의 신 향정신성 물질(NPS)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특정 마약 복용자 사이에서는 신 향정신성 물질들이 더 해롭고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된다. 비록 이런 문제 있는 사용방식들이 유럽사회에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 향정신성 물질 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걱정과 관심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신 향정신성 물질(NPS)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그것의 공급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정책은 일정한 규제력을 지녔다. 그러나 국민보건 관련 관심사가 대두되자 국민보건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졌다. 이 연구에서는 신 향정신성 물질(NPS)을 사용하는 핵심적인 집단들과 현재 다양한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신향정신성 물질 등장에 따른 대책방안

지난 십년간 세계 마약시장에 새롭게 떠오른 많은 신 향정신성 물질(NPS)들과 이의 복용에 대한 문제들은 마약 정책과 시행에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국제연합마약연구소 2013, 유럽마약감시센터 2015a)

유럽 전체 인구가 볼 경우, 신 향정신성 물질의 확산이 아직 더디지만, 각기 다른 환경의 특정한 마약 고위험군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해로운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를 야기한다. 젊은 사람, 밤 문화를 즐기는 사람, 동성간에 성관계를 하는 남자들(MSM), 마약 복용자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가 고 위험군 집단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게는 마약류 폐해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예방활동, 응급시 진료관리, 약물요법, 위해성 감소대책을 적용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롭고 위험한 신 향정신성 물질에 관련된 행동들이 일어나는 곳 혹은 이 물질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도움을 찾는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가진 보건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해 유럽연합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학교다. (유럽 마약 감시 센터, 2015b), 비록 발전된 효과적인 방법과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시행되는 활동은 대부분 대마초 혹은 위험한 물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나 폐해 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유럽 마약 감시 센터, 2015c; Faggiano et al, 2014)

신 향정신성 물질의 확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학생 집단에서는 낮기 때문에, 신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접근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학생들 사이에서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 문제가 커지면, 현재 널리 사용되는 기존의 예방 프로그램에 신 향정신성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다수의 마약예방프로그램과 접근법들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들(독립된 매스미디어와 정보 캠페인)을 일으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되고 검토된 프로그램들에만 신 향정신성 물질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신 향정신성 물질 확산 방지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효과가 입증된 전체 예방 프로그램 중 일부로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 마약 방지 품질 규격 (Brotherhood and sumnall, 2011)이나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가 제공하는 입증된 자료들이 발전되고 개선된 형태를 가진 학교에서의 신 향정신성 예방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밤 문화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사용의 폐해에 따른 건강에 영향을 약 관련 밤 문화 환경인 술집, 바,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음악공연장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물리적 환경변화(예: 조용한 공간, 인원통제, 환기가 잘 되는 환경)과 정보제공, 교육, 봉사활동, 마약테스트, 위기관리능력 등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서 마약 사용자들에게 시험용으로 제공된 마약류에 대한 화학적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테스트하는 서비스 제공 목적의 온·오프라인의 마약검사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마약 사용자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기회를 주고, 몇몇 기관은 이들에게 폐해 감소 및 개인에게 적합한 조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검진하며 단시간의 직접 개입을 하기도 한다. (TEDI, 2013).

그러나 신 향정신성 물질을 포함한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정보, 구조 및 이런 내용을 전달할 목표 대상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테스트에서 나온 정보들은 정책담당자들과 나아가서는 그들이 속한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의 특성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응급의료 전문가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밤 문화 환경에서 국민보건에 끼치는 영향조사의 목적과 효과는 항상 충분하게 정의되고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밤 문화 환경에서 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국민보건 정책에 관련된 정보들은 매우 적다.

하지만 밤 문화 환경에서 유통되는 기존의 마약류와 알코올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조치와 건강에 영향조사는 신 향정신성 물질과 관련성, 신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 및 폐해문제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예: the EU HNT-유럽연합 건강한 밤 문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신 향정신성 물질은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심지어는 남녀의 성문화 환경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 조성 기구, EMCDDA- 파티와 밤 문화 적용 모범 입문기준)

응급의료기관에서

많은 신 향정신성 물질의 급성독성 관련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사용 물질의 성분 규명이 어려우며 (자가 검사하거나 특수독성검사를 해야 하는 등) 복합물질의 사용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신 향정신성 물질이 많이 생겨남에 따른 사용지침과 급성진료 시 대응방안의 제시를 요구받아 왔다.

임상관리방식은 대증요법진료(symptomatic care-병의 원인 확인이 어려워 길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따라 진료하는)에 방향성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신 향정신성 물질의 독성도는 약리학적 분류에 의한 마약류 제품의 독성도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ines et al, 2015)

그러나 해리현상을 지닌 메톡세타민

① (methoxetamine)과 같이 기존의 임상정보와 차이가 있는 특이한 예외의 경우도 있다.

※ methoxetamine은 환각효과가 있는 신종 유해물질로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향정신성 물질로 지정됐다. (Euro-DE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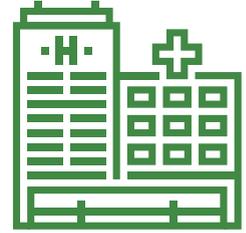
대부분의 신 향정신성 물질 관련 사건들이 몇 시간 후면 종료되지만 관계한 의료진들은 간결한 상담제공, 지역단체에 위탁지원, 사례선별 등을 접할 기회를 갖는다.

응급의료지원에 참여할 기회는 의료기관 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밤 문화나 음악 공연 등 현장(on site)에서의 의료지원은 다각적인 봉사활동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입원 전 환자관리와 개인환자의 특성파악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밤 문화 진료 참여 의료진이 평가하여 파악된 개인 환자의 특성 파악)들이 제정 발전되어 왔다. (Euro-DEN, 2015),

성문제 존재 환경에서

메페드론이나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흥분제 등 합성카티논계 제품을 사용해서 남자들 간에 성관계(men who have sex with men 이하 MSM이라 칭함)를 갖는 많은 사례는 이들 제품들이 어떻게 성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Bourne et al, 2014). 이것을 종종 '캠섹스(chemsex)'라고 칭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연구는 카티논 주사(기타 흥분제 포함)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소위 '슬래밍(Slamming)'이라 알려진 카티논을 사용해 섹스 하는 MSM들의 성습관은 주사기 및 주사와 관련된 물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이즈(HIV)와 C형 간염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MSM에게는 마약문제 관련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몇몇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으로는 MSM이 지니는 명예롭지 못한 오명과 전통적으로 마약류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역량부족, 마약사용이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MSM의 자아인식부족, 켐섹스(chemsex) 마약 사용 시 이에 부합되는 구체적 서비스 제공의 부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과 마약을 연결 짓는 정책에 대한 수요와 성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MSM에 대한 동성의 시선은 몇몇 나라에서 이들을 위한 마약류의 개발과 성적 공공의료 서비스의 개발을 이끌었다. 켐섹스(chemsex)와 관련된 성적위험요인 감소와 관련해 에이즈를 보유한 MSM에게 특별 전문가 지원서비스는 에이즈의 전파를 막고 위해성을 줄이며 기타 성적인 전염을 줄이는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인원들에게 마약류의 사용과 폐해에 대한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또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부족한 현실이다. (Bourne et al., 2015)

② NEPTUNE은 chemsex에 사용되는 마약류의 위해성과 사용법을 알리는 임상 지침을 발표했다. (Abdulrahim et al., 2016)

※ NEPTUNE(영국 신 향정신성 물질 대처요법에 관한 협의기구) ※ 약어를 ‘해왕성 Neptune’이란 명칭과 동일하게 맞춤, the Novel Psychoactive Treatment UK Network) 이 지침은 장소나 환경(setting)등에 관계없이

chemsex에 관한 명확하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조언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culturally competent individuals, 관행적으로 능숙한 사람, 즉 의사 등 전문가를 의미)의 관행적 습관의 차이가 어떻게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과 위해성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Low-threshold 서비스 제공

③ Low-threshold services(문턱이 낮은 서비스 의미)는 마약류 사용자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서 주기적으로 주사기 교체, 조언, 정보제공, 거주, 위생 및 성 문제와 같은 도움을 주는 사안들을 마약중독자들에게 제공한다.

※ Low-threshold services : 유럽이나 미국 등에 존재하는 마약중독자들만을 위한 시설로 마약중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마약투약 및 주사기 제공 등 여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약중독자들의 타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문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Low-threshold 서비스 적용에 따른 그 효과와 대처법, 위해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현장에서는 마약사용 및 폐해 감소 관련 기준에 효과를 봤던 대처법을 신 향정신성 대처법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문턱이 낮은 서비스(Low-threshold services)는 마약중독자들에게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공유하며 마약중독자들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미확인된 정신약리학 및 독성학적 신종마약의 사례가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자에게 적용하는데 보다 큰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



〈상호작용적 요인 - 비디오〉 : NPS 대책과 상이한 환경에서의 NPS에 관한 5개 비디오(EMCDDA웹사이트에서 발췌)

일반적으로 Low-threshold 서비스 및 위해 감소 활동들은 기존의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반영하게 될 것이나, 반면 신 향정신성 물질을 주사로 투약하는 마약사용자들과 관련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다. 이는 미확인된 정신약리학 및 독성학적 신종마약의 사례가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자에게 적용하는데 보다 큰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신 향정신성 물질 관련 주사투약제공자들(전문가)이 아편과 암페타민주사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위해성 감소에 대한 지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만으로 신 향정신성 물질 주사와 관련된 새로운 위해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살균된 주사장비와 기구 및 피입기구, 신 향정신성 주사투약제공자들(전문가들) 간의 안전한 주사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사기와 주사바늘 교체, 그리고 흥분제 주사 시 각기 다른 방법의 주사투약(예: 더 자주 투약해야 함) 방식 적용 또한 중요하다.

Low-threshold 참여 스텝의 능숙함이 적용된 사례(즉 신 향정신성 물질의 위해성 감소에 이들 스텝의 능숙함이 효과를 발휘한)로는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로칼 패스(Local PASS) 프로젝트다.

여기서 Low-threshold 참여스텝과 다른 Low-threshold 기관 스텝은 지역신종마약조기경보위

원회(Local Emerging Drug Trend Panel)에 동료 위원으로 함께 참여해 신 향정신성 물질을 규명하고 위험그룹 분류 및 신 향정신성 물질로 확정, 위험등급 등을 매기는 역할을 한다.

이어 조기경보위원회는 신 향정신성 물질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개입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http://www.localpass.eu/cms/local-pass-toolkit/>) HIV(에이즈)와 C형간염 주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특별전문서비스로서 혈액매개바이러스 검사 기회의 제공 및 살균주사장비에 대한 접근성 증가, 주사장비의 제공 증가 등으로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신 향정신성 물질 투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문화된 약물 치료요법을 통해서

정형화된 신 향정신성 약물치료요법은 비슷한 약리학적 그룹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방식과 많은 점이 유사하다. 현재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지닌 사람들에게 약물요법적인 대안이 없으며 히드록시부티르산(GHB),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제외하면 약물의 금단증상에 따른 구체적인 약물학적 치료요법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NEPTUNE' 지침에 따르면, 치료의 본질과 강도는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몇의 환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강도의 짧은 치료요법에도 효과를 보이고 심지어 공공 기관처럼 정형화된 기관에 맡겨져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노력해 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기도 하다.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에 따른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개인 및 집단을 기반으로 한 행동적, 심리사회적 접근법(예: 인지행동치료, 동기부여면담, 사회성 발달 격려, 수반성관리) 혹은 정형화된 심리치료 요법, 단계별로 나누어진 치료요법 등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에 관한 꼼꼼한 평가, 이에 따른 결과, 그리고 연관된 필수





요소들의 파악이 중요하다.

마약관련 치료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 평가하고, 신 향정신성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 향정신성 물질 관련 사례시 대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예: 넓은 범위의 마약종류, 효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
- 2) 넓은 범위 다양한 환자를 대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 발전
- 3) 신 향정신성 물질 관련 복잡한 사례의 해답을 찾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 4)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고 전문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네트워크 설립 등이 있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신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는 재소자들에 대한 정보, 특성, 환경 및 부작용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마약복용 시 위해성 감소 및 부작용 최소화 정책이 이들에게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편과 같이 신 향정신성 물질을 복용하는 재소자들의 경우, 기존 증거사례는 아편을 대안용으로 제공해주는 치료법이 사망률과 마약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심리사회적 치료요법이 마약사용 재발률을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금된 시설에서 어떻게 신 향정신성 물질 복용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부족해, 교도소 내에서의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안정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구금된 시설에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람과 일반 사회의 치료요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아마도 구금시설에 건강관련 교육과 신 향정신성 물질 복용인원을 위한 치료정책을 장려하고 입소자와 퇴소자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금시설 간수를 위해 신 향정신성 물질 복용관련 건강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침서가 현재 영국에서 개발 중이다.

결론 / 신향정신성 물질 평가체계의 완비가 선행되어야

신 향정신성 물질(NPS)시장은 복잡하고 신규 제품들도 급속히 등장하고 있다. 이는 보건정책방향도 이러한 변화에 상응해 발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과 부작용에 관련된 대책들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마약류대처법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 그룹이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에 따른 요소로는 신 향정신성 물질 사용자 그룹이 갖고 있는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그 그룹이 지니고 있는 서비스 제공의 기회, 나아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 능숙함(전문성을 의미)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약물사용 예방책이나 치료법, 위해감소대책의 경우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입증된 사례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신 향정신성 물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중한 접근과 더불어 신뢰받는 신 향정신성 물질 평가체계의 완비가 선행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Further reading: Health responses to new psychoactive substances (EMCDDA, 2016).

신향정신성 물질 관련 사례시 대처 목표



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예: 넓은 범위의 마약종류, 효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



넓은 범위 다양한 환자를 대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 발전



신 향정신성 물질관련 복잡한 사례의 해답을 찾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고 전문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네트워크 설립